

6·4 지방선거 표밭 점검

'3선 반감'속 무소속 후보 선전

영광군수

영광군수를 뽑는 6·4지방선거는 정기호 현 군수와 김준성 전 영광군의회 의장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팽팽한 승부를 벌이고 있다. 최근 영광지역 일부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2~3%대 오차범위 내에서 엇치락뒤치락하고 있다.

특히 정 군수의 3선 도전에 대한 반감 정서가 팽배해 김준성 전 의장의 선전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팽팽한 승부를 벌이고 있다. 최근 영광지역 일부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2~3%대 오차범위 내에서 엇치락뒤치락하고 있다.

특히 정 군수의 3선 도전에 대한 반감 정서가 팽배해 김준성 전 의장의 선전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팽팽한 승부를 벌이고 있다. 최근 영광지역 일부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2~3%대 오차범위 내에서 엇치락뒤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리 선거 유세도 치열하고,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후보간 공방도 불붙었다. 두 후보는 읍·면 곳곳을 돌며 거리 유세를 펼치고 있으며, 유권자도 군수 선거에 관심이 많아 이들의 거리 유세를 유심히 지켜보는 등 선거 열기가 그 어느 곳보다 뜨겁다.

정 군수는 앞서 지난 2006년 있었던 4기 군수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도전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종만 전 군수에 패했다. 당시 강 전 군수를 중심으로 한 '무소속 연대'의 돌풍을 넘지 못했지만 강종만 전 군수가 도종하차 하면서 민주당 후보로 재도전에 당선됐다.

정 군수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로 무난하게 재임에 성공했다. 정 군수는 안정적인 군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3선 도전에 나섰다. 재임기간 동안 투자유치와 문화관광, 농

식품산업육성 등 군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적 발전을 이뤘다고 자부하고 있다. 또 관광과 스포츠 마케팅에서 지역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정 군수의 공약은

영광군수 후보

정당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정기호(59)	무소속 김준성(62)
경력	영광군수	전 영광군의회 의장
주요 공약	·대마산단·송림농공단지 2년 내 활성화 ·지역미래의 발전도대 구축 ·소상인과 서민 경제의 활력 회복	·대마산단 조기 활성화 ·푸른휴식 공간 확충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제정

현군수-前군회의의장 오차범위내 점전

2008년 보궐선거 이어 자존심 건 재대결

▲대마산단·송림농공단지 2년 내 활성화 ▲지역미래의 획기적 발전도대 구축 ▲소상인과 서민 경제의 활력 회복 ▲농어업 예산 1000억원 확충 등을 내놨다. 또 지역 산단에 전국최초 1~2인승 전기차 신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100개 기업유치로 인구 5000명 이상 증가를 약속했다.

김준성 전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결정했다. 그는 출마선언을 통해 "주민의 뜻이 왜곡되고 무시당하는 것은 새정치일 수 없다"며 "군민께 직접 의사를 묻기 위해 무소속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역에서 30여년 사업을 하며 지역에 뿌리내린 토박이며, 인맥이 탄탄하다는 강점이 있다. 또 영광군의회 의장으로 경영과 행정을 두루 경험했고, 50대 늦은 나이에 대학원 졸업장을 받기도 했다.

그는 노인 복지와 군민 편의 정책을 강

조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대표적인 공약으로 ▲대마산단 조기 활성화 ▲푸른휴식 공간 확충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제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등을 내놨다.

또 ▲노인장수 수당 확대 지급 ▲노인 전문 치료병원 확충 ▲80세부터 매월 10만원씩 지급 등 노인을 위한 공약도 약속했다.

선거가 치열하다 보니, 군정의 특정 사업에 대한 공방이 끊이지 않는 등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법정선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매입 의혹, 대마산단 조성 과정의 채무보증, 에코네스 피해 문제 등 감사원 등에서 지적받아 온 영광군정의 사업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영광=조익성기자 ischo@

현군수 재선도전 vs 무소속 단일화

함평군수

함평군수 선거는 재선에 도전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안병호 군수에 맞서 무소속으로 김성호 전 전남도의원과 노두근 전 강진부군수가 나섰다.

이번 함평군수 선거 최대의 변수이자 관전포인트는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다. 안 후보가 현역과 당 프리미엄을 동시에 가진 관계로 지지율 경쟁에서 앞서가자 무소속 후보간 단일화를 통해 '1대1' 대결을 시도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김 후보와 노 후보는 그동안 수차례 만난 결과, 27~28일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29일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안 후보는 "정책과 철학이 같아야 단일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상대후보를 제압하기 위해 단일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때문에 단일화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비축제는 선거 쟁점이다. 안 후보는 "허실을 따져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내용을 알차게 한 결과, 관광객과 수입이 오히려 늘었다"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는 "호재를 살리지 못했다"며 친환경 곤충 식량화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노 후보도 "나비축제를 국가대표 축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축협 조합장 출신인 안 후보는 4년 동안 '풍요로운 함평' 건설에 매진해 ▲단호박·부추·고사리를 3대 특화작물로 육성 ▲다시마 양식 성공 ▲의료 사각지대 해소 위해 이동 진료차량 운행 ▲산단내 73개의 공장 유지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 ▲올해의 CEO대상(2013년) ▲기업가 정신 미래혁신 경영대상(2013년) ▲대한민국 무궁화대상(2011년) 등을 수상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에 안 후보는 "10

함평군수 후보

정당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안병호(66)	무소속 김성호(67)	무소속 노두근(61)
경력	함평군수	전 전남도의원	전 강진부군수
주요 공약	·동함평산단 분양 총력 ·함평발 전국 대표 브랜드 정착 ·함평전지 종합복지관 조기 완공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노인건강 증진 사업 ·여성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	·친환경 농업 육성 및 판로 확대 ·영산강권, 용천사권, 함평면권 삼각벨트화 ·곤충산업 및 생태관광 육성

김성호·노두근 무소속 단일후보 내일 결판

나비 축제 "성공" "실패" 후보들 공방

만 함평군민 시대'를 건설하겠다"며 재선에 도전했다.

그는 "해보 농공단지 조성해 모두 분양했으며, 조성중인 동함평 산단이 올해 말 준공하면 80여개 업체에 36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또 전국 최초로 명암에 축산특화 농공단지를 만들고 해안도로를 확·포장해 관광객 유치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다른 공약으로 ▲함평전지 음식 테마거리 조성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함평전지 종합복지관 조기 완공 ▲함평 공영박·부추·고사리를 3대 특화작물로 육성 ▲다시마 양식 성공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동 진료차량 운행 ▲산단내 73개의 공장 유지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 ▲올해의 CEO대상(2013년) ▲기업가 정신 미래혁신 경영대상(2013년) ▲대한민국 무궁화대상(2011년) 등을 수상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에 안 후보는 "10

다"며 선거에 나섰다. 그는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방학 중 기초 및 선행 학습 캠프를 운영하는 드림하이 사업 실시 ▲원격 의료시스템 도입 ▲독거노인 공동 거주 추진 등을 공약했다. 노두근 후보는 39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지난 2013년 초부터 선거준비에 매달려왔다. 애초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을 준비했으나 "공천 원칙을 어기고 개혁공천도 새정치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주장하며 탈당했다. 그는 "함평군민의 62%가 농어민인 만큼 농어민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며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축산업 기반 구축 등을 약속했다. 또 ▲영산강·용천사·함평면권의 관광 삼각벨트화 추진 ▲문화 예술의 전당 건립 ▲구 학교역세권 개발 ▲법군민 기업유치단 구성 등을 공약했다. /박지영기자 jkpark@ /함평=황운학기자 hwang@

1선거구 이동권 단독 출마...2선거구 이장석-박찬수 대결

도의원

영광의 전남도의원 선거는 이동권·이장석 현 전남도의원이나 나란히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

제1선거구에서는 이동권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옷을 입고 단독 출마했다. 전 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을 역임한 이 의원은 ▲농기계 수리비

무상지원 확대 ▲지방도 816호선 조기 추진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의 공약을 내놨다.

제2선거구에서는 이장석 현 의원과 무소속 박찬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이장석 의원은 ▲어선 정비 현대화 사업 ▲홍농·법성 도시가스 공급 ▲어르신 주치의 제도 시행 등의 공약 발표하고 표밭을 다지고 있다.

영광도의원 후보

선거구	이름 (나이·정당·경력)
제1선거구	이동권 (52·민·전남도의원)
제2선거구	이장석 (62·민·전남도의원)
	박찬수 (55·무·전 전남도의원)

※민=새정치민주연합, 무=무소속
이에 맞서는 박찬수 후보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해안자연경관도 신설 ▲노인 여가시설 확충 등의 공약을 내놨다.

1선거구 임용수·2선거구 노종석 단독 출마 무투표 당선

도의원

함평의 전남도의원 선거는 사실상 이미 끝난 상태다. 두 선거구 모두 단독 후보가 나서 사실상 도의원 당선은 눈 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제1선거구(함평읍·신광·손불·염다)에는 현역 전남도의원인 옥부호 의원이 농업조합장 출마로 선외함에 따라 많은 입

지자들이 입질을 했으나 결국 임용수 후보만 남았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에서 김장훈 후보에 승리, 후보가 됐다. 전 함평군의원 출신인 그는 지난 2007년 군의원 보궐선거에 대한통합민주당 후보로 도전했다가 실패했으나 3년 후 2010년 지방선거에서 군의도에 다시 도전해 성공했다. 제2선거구(학교·대동·해보·월야·나산)에서는 현직 전남도의원인 새정치민주연

함평도의원 후보

선거구	이름 (나이·정당·경력)
제1선거구	임용수 (48·민·전 함평군의원)
제2선거구	노종석 (65·민·전남도의원)

※민=새정치민주연합
함 노종석 후보가 홀로 나섰다. 그는 당 경선에서 정상진 후보를 51%대 49%의 아슬아슬한 표차로 승리했다.

죽석요리 무한리필

OPEN 30년 전통돈까스

SALAD & PASTA COOK

Since 1983 **유생촌**

유·스퀘어점

유생촌 무한리필

돈까스

성인..... 10,900

초등학생..... 7,000

소인(미취학)..... 4,000

음료..... 무한리필 (콜라, 사이다, 원타, 주스)

죽석요리

알리지않는 생돈까스 30년의 노하우

샐러드 & 돈까스 스파게티, 탕수육, 미트볼, 제육볶음, 치킨, 생선까스

유·스퀘어점 ☎ 062) 671-1199

유·스퀘어_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구.아이엘리시아)

광고심의필 2012-10-18-1326

NAVER 광주 소리큐

국내개발 | 국내생산

소리큐보청기

NEW soriQ (음성증폭기) 제품 모델명 S20, S22, ST33

TV시청할때
강의 들을때

핸드폰 통화할때
대화·상담할때

찾아오시는 길

전남대병원 맞은편 본죽2층

소리큐 보청기광주 호남총판

062) 227-1700